세대교체 한국 펜싱 4회 연속 '금빛 찌르기'

신예 박상원·도경동과 남자 사브르 단체 3연패 도전
국제 대회서 '효자 종목'… 여자 에페도 금메달 후보

국제 대회에서 한국의 '효자 종목'으로 활약해 온 펜싱이 세대교체기에 맞이한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빛 찌르기'에 나선다.

펜싱은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한국에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를 안긴 종목이다.

메달 수로만 보면 양궁(금27·은9·동7)이나 태권도(금12·은3·동7) 등 한국의 다른 강세 종목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펜싱의 메달은 2000년대에만 나온 것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이상기가 사상 첫 동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김영호가 남자 플뢰레 개인전에서 금메달까지 따내며 한국 펜싱의 전성기가 시작됐다.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선 은메달만 하나(여자 플뢰레 개인전 남현희) 나온 뒤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는 금메달 행진이 이어졌다.

특히 런던 대회 땐 여자 사브르 개인전(김지연)과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연이어 금메달이 나오며 처음으로 단일 올림픽 '멀티 금메달'이 탄생했다. 여기에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가 터져 나와 한국 펜싱 역사상 최고의 대회로 남았다.

이번 파리 대회를 앞두고도 지난 대회 결승에 올랐던 남자 사브르 단체전과 여자 에페 단체전이 금메달을 노릴 만한 주력 종목으로 꼽힌다.

남자 사브르는 기존 주축인 오상욱(대전광역시청),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예급인 박상원(대전광역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이 합류해 파리로 향한다.

도쿄 올림픽과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여러 대회에서 오상욱, 구본길과 호흡을 맞춰 금메달을 합작하고 팀 세계랭킹 1위를 오래 지키는 데 힘을 보탰던 김정환과 김준호가 물러나고 '젊은 피'가 가세하며 세대교체가 진행됐다.

여자 에페 대표팀은 송세라(부산광역시청), 이혜인(강원도청),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청), 최인정(계룡시청)으로 멤버가 유지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태극마크를 내려놨던 최인정이 올해 전격 복귀해 안정감을 더했다.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 대표팀은 최근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단체전 4연패를 달성하며 실전 점검을 마쳤다. 남자 사브르의 간판 오상욱은 개인전까지 정상에 올라 2관왕에 오르며 첫 올림픽 개인전 메달 기대감도 키웠다.

2회 연속 단체전 입상을 노리는 여자 사브르는 윤지수와 전하영(이상 서울특별시청), 최세빈(전남도청), 전은혜(인천광역시 중구청)가 팀을 이뤘다.

단체전 출전권을 딴 이들 3개 종목엔 한국 선수가 3명씩 개인전에도 출전할 수 있는데, 오상욱과 송세라가 개인전에서도 메달 후보로 거론된다. 경기는 현지시간 7월 27일 남자 사브르, 여자 에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개인전이 열리며,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종목별 단체전이 이어진다. 연합뉴스

제주Utd 7월 "잔류냐, 강등이냐"

21~25라운드 울산 포항 강원 등 상위권 팀과 경기
연패 시 10위권 추락… 17일 코리아컵 김포전 변수

리그 8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유나이티드가 7월 한 달 5경기가 올 시즌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지난 주말 끝난 20라운드 결과 7승 2무 11패 승점 23점으로 8위에 올라 있다. 제주는 19라운드 인천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 3연패에서 탈출하면서 반전 분위기를 잡았지만 20라운드 광주와의 경기에서 1-2로 패해 최근 5경기에서 1승만 거두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시즌 19 득점에 그치며 리그 최하위 수준의 공격력은 최악이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승리하는 경기"라는 제주 김학범 감독의 말이 제주의 현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

제주는 7월 한 달간 상위권 팀과 잇따라 경기를 가지면서 다시 연패에 빠질 경우 강등권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주는 6일 리그 6위 서울(홈)을 만난 후 10일 전북(어웨이)에 이어 13일에는 3위 포항(홈), 20일 4위 강원(어웨이), 26일 2위 울산(홈)과 맞붙는다.

현재 상위 스플릿 마지노선인 6위 서울(승점 27)과 강등권인 10위 대구와의 승점 격차는 모두 3점이다.

올 시즌 울산, 포항, 강원과의 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북 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강원·울산과의 경기를 앞두고 펼쳐지는 17일 김포와의 코리아컵 8강전도 변수다. 3일 후 열리는 강원과의 경기를 생각한다면 총력전을 펼치기도, 현재 리그 순위를 고려할 때 포기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장마철 수중전 변수와 무더위, 그리고 쉼 없이는 이어지는 경기일정 등을 고려할 때 선수들의 체력싸움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지난 동계시즌 김학범 감독 취임과 함께 '100분 축구'를 지향하며 체력훈련을 강화한 만큼 7월 한 달 상위권과의 싸움에서 밑바탕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LPGA 고진영과 라운딩할 절호의 기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스크린 골프대회 개최

아마추어 골퍼에게 LPGA 고진영 선수와 동반 라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스크린 골프대회가 열린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전국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한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광동제약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제주 블랙스톤 골프장에서 열리는 '제11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의 사전 행사로 열린다.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를 소개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스크린 골프 플랫폼 기업 골프존과 협력해 진행된다.

1위에게는 세계적인 프로골퍼 고진영과 함께하는 라운딩 기회가 주어지며, 상위 10위까지는 캐디백 등 골프 팬 맞춤형 상품이 제공된다. 또한 3위, 13위, 2673위 등 '3'으로 끝나는 등수마다 제주삼다수 앱 3만 원 쿠폰이 증정되며,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한 러키드로우 상품도 제공된다.

한편 다음 달 1일 열린 KLPG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는 총상금 10억원, 우승 상금 1억 8000만원을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는 제주 출신으로 올해 LPGA에 진출한 임진희 선수다. 위영석기자

"이번이 내 마지막 유로" 2일(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프랑크푸르트 아레나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와의 유로 2024 16강전에서 호날두(포르투갈)가 0-0으로 팽팽하던 연장 전반 막판 페널티킥을 차기 전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이날 페널티킥 실축으로 눈물을 흘린 호날두는 승부차기 승부 끝에 3-0으로 승리하며 극적으로 8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제주Utd '중원의 핵심' 이탈로와 재계약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이탈로(사진)가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와 3년 더 동행한다.

제주 구단은 "팀 중원의 핵심인 이탈로와 3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브라질 3부리그 아마조나스FC에서 활약한 이탈로는 올 시즌 제주에 합류하면서 처음으로 해외 리그에서 뛰게 됐다.

프로 경력이 돋보이지는 않지만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본 제주가 영입에 나섰다.

190㎝의 장신인 이탈로는 체격을 이용한 공중볼 장악 능력이 뛰어나고 공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미드필더다. 대인 수비력도 뛰어나 가로채기(경기 당 1.6개·리그 5위) 등 수치도 좋다.

제주 구단은 "이탈로는 올 시즌 압도적인 기량으로 K리그1 무대를 장악하고 있다"며 "구자철, 최영준의 부상 공백에도 팀의 중원이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탈로는 "해외 리그에서 뛰는 게 처음이어서 내게 물음표가 붙었다는 사실을 안다.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준 건 코칭스태프, 동료, 프런트, 제주 팬들의 믿음이었다"며 "그라운드에서 실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1:05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재) 11:10 시사기획 창(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 7:00 TV 유치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2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10:00 KBS 아침 뉴스타임 10:20 인간극장 스페셜 11:00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용감무쌍 용수정(재) 8:30 TV 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글로벌 도네이션쇼 W 스페셜 11:45 주니토니 이야기(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애니갤러리 11:30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 2	8:20 안전초코 핫초코 8:50 뿡뿡빵빵 부부맨 9:20 탑골스타 개청이 12:10 PD로그 15:15 클래스 e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17:40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8:10 EBS 뉴스 19:20 고향민국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4:00 KBS 뉴스 14:1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17:30 탐나는 제주	12:15 영화가 좋다(재) 13: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거멍숲을 지켜라! 버디프렌즈(재) 15:30 TV 유치원(재) 16:00 스튜디오 K 스페셜 16:30 영상앨범 산(재) 17:00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 17:15 니니 뭐하니 2 17:30 꿀잼 영화가 좋다	12:00 12 MBC 뉴스 12:25 장애 인식 개선 프로젝트 희망 노트 13:05 차징 탑스피너 BX(재) 13: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50 골 때리는 그녀들(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휴먼다큐 병영의 달인 16:30 혼저옵서예 스페셜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네모세모	**KCTV** 8:00 볼링레슨 퍼펙트 9:00 KCTV 9시 뉴스 9:30 금쪽같은 제주물 10:30 러브인 제주 12:00 인터뷰 제주공감 13:20 KCTV 다큐스페셜 15:00 KCTV 15시 뉴스 15:20 금쪽같은 제주물 17:00 KCTV 17시 뉴스 18:00 볼링레슨 퍼펙트 18:30 인터뷰 제주공감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집중토론제주 20:30 수지맞은 우리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스캔들 20:30 월드 24 20:55 2장 1절 22:10 MA1	18:05 테마기행 길 스페셜 19:05 용감무쌍 용수정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놀면 뭐하니? 스페셜 22:30 라디오스타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40 신들린 연애(재)	**제주CBS FM 93.3MHz 90.9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떤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저녁종합뉴스 18:00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3(수)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3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노력한 만큼의 즐거움과 이익이 온다. 48년 신중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60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72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8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사랑을 받는다.

37년 거래나 계약관계로 소식이 찾아온다. 49년 목표가 있으면 추진. 직장인은 변동수가 생긴다. 61년 내가 할 일이 생기고 지시할 일이 있다. 73년 취업, 직장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며, 미혼여성은 결혼 상대자를 만난다. 85년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생은 고민이 많아진다.

38년 가정사 문제로 불화 또는 논쟁이 생기니 나서지 말고 중립을 유지. 50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 62년 직장이나 거래처에서의 갑작스런 사안이 발생해 놀람이 있다. 74년 뜻하지 않은 회식이나 이성교제에 행운이 따른다. 86년 취업이나 진학의 기회가 있다. 최대한 활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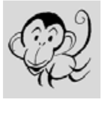
39년 과거에 집착하면 우울해지고 권태가 온다. 51년 문서 관련 업무는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63년 계약건은 원활하게 성사되고, 자녀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75년 새로운 계획(창업)이 있다면 소신껏 추진하라. 87년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미래 직업에 반영하는 일을 구상할 것.

40년 여유와 차분함이 필요하고 안정할 시기이다. 52년 하는 일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약속은 보류 된다. 64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주 만나 협의하고 논의하라. 76년 모함 또는 시기, 질투가 생기니 참견하는 일은 자제. 88년 새로운 변화나 미취업자는 취업, 직장운이 길하다.

41년 명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면 좋다. 53년 직장이나 사업장의 매출 이익과 생산 증대되며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65년 말이 많으면 구설이 오니 언행을 조심하고 상대의 말에 경청이 필요한 때. 77년 이동, 변동이 따르고 분주하다. 89년 자존심을 앞세우면 이성교제에 불리.

42년 부부간에 시댁, 처가 문제 또는 자녀로 인한 걱정이 생긴다. 54년 문서이동, 이사, 매매 등에서는 계약이 성사되고 이익이 따른다. 66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가 필요하다. 78년 취직을 하게 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 90년 행복의 시작은 건강에서 온다.

43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55년 하는 일에 준비가 필요하니 주변 정리가 우선이다. 67년 애인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오면 관용이 필요하다. 79년 친구, 동료의 만남이 있으며, 애정에 희소식이 있다. 91년 신용, 약속 또는 돈과 관계된 일로 구설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44년 자녀로 인한 근심이 오니 먼저 전화를 할 것. 56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이 생긴다. 68년 최선을 다한 일에 결과가 있고, 나를 인정받게 해준다. 80년 부모나 윗사람과의 의견다툼으로 일이 지체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92년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건강이 약해질 수 있다.

45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 대인관계를 적극 활용하라. 57년 재물 손실이 있으니 지갑 조심. 69년 얼굴에 손을 댈 일이 있거나 자녀 문제가 생기니 지출보다 저축이 필요하다. 81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부모님께 안부전화나 찾아 뵙는 것이 좋다. 93년 문서 이동수가 있고 건강이 약해진다.

46년 도움에 의한 일자리나 직업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다. 58년 남의 일에 간섭하다 내가 일을 대신 해주는 형국. 70년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약속이 생기면 중지하라. 82년 바쁘게 활동하지만 결과는 적다. 94년 시련 속에 열매가 맺으니 기쁨이 충만되고 의욕이 상승한다.

47년 투자 시에는 신중함과 관찰력이 필요하다. 59년 언쟁이나 불화가 생기니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71년 타인의 배려가 간섭이나 억압으로 느낄 수 있다. 여유와 긍정적 사고가 필요. 83년 경솔하게 행동하면 미움을 사게 되니 행동은 조신하게 하라. 95년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에 약하니 잘 마무리 해야 한다.